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4호 【루게 제24767호】 주제103(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안정수 동지, 한광상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명순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당에서 정해준 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였으며 연말 전투에서도 편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을 만나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장로동계급들을 무수 말로 축하해주고 고무해줄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공장현판에 새길 글을 써달라고 하던 부락이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친필을 일군들에게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이 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역사를 잘 알수



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어있는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더 잘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해당 부문과 합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였으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일신시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혁명사적교양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이 정말 많다고, 사진문헌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사상과 숭고한

애민관을 잘 알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것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담으시였다고,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과 작풍을 따라배워 인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업원들속에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을 늘어나감으로

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견전직장, 염색종합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질 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방직과 염색, 날염 등 모든 생산공정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고있는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생산된 인견천들과 날염천들의 질도 높다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천들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종업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울리고있는 생산정형의 동음소리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소리,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소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려지게 해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적수준과 생활상요구는 대단히 높으며 여러가지 질 좋은 천제품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에서 더 많은 천을 생산하고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학생교복천생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교복생산과 공급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학생교복문제를 푸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학생가방용천생산에 필요한 기술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종업원들이 공장에서 배출한 로력영웅들과 선군시대공로자들, 로력혁신자들처럼 자기들의 일터는 내가 지켜선 초소라는 자각을 안고 한생을 공장과 더불어 혁신자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우리 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



공장이 생산실적에 있어서나 생활환경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

지식보급실을 더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 새로 건설한 로동자합숙의

관리운영과 후방사업실태도 알아 보시고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구내를 거시면서 원림록화가 잘된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김정숙평양방직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모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전문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나는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쿠바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포함한다. 단상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쓰

2014년 12월 17일

아바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프랑스의 AFP통신, 아르헨티나신문 《플라린》, 싱가포르 TV 《아시아스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천박람회를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포럼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종훈7면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비행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과 조선인민군

제572련합부대와 제630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나 팔 신문 《아르 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종훈7면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비행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네 팔 신문 《여저투르》는 조선인민군 제2군

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만나 TV방송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가족애호소조 조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네 팔, 만마의 신문, 텔레비존 방송 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포럼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적속 포병중대와 오종훈7면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비행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함께 군인가족애호소조 조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 외국인들이 강조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진보적인 류에게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뜨겁게 표시되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헨리 마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상리론의 대가이다. 그의 업적은 세계 각국에서 찬사받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어 자주주의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시었다.

김정일동지와 같은 회색의 위인을 모신것은 진보적인류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 거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연구 보급하기 위한 세계 혁명적인류들의 활동이 날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벨라루스 2.16명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장 김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마르 히메네스 로베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선군정치로 승주의변환세력의 반공화국압살체통을 짓부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시었다. 선군정치가 있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정치군사강국, 자주의 성세로 전변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세계인민들은 국력이 강해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고 평화적환경에서 경제발전도 이룩할수 있음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부강적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철세워인의 혁명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또한 한 분의 선군명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김정일총비서의 위대한 업적은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평도력,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영애를 열렬히 칭송하였다.

메히코로동당대표단 단장 알베르도 아야 구에라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으시었다. 그의 업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공부

화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주시었다.

그의 심오한 혁명사상은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혁명투쟁과 실천활동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불멸의 대가들을 모든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겐나지 폴리코프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조선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칙으로 정립하시고 주체의 군권위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의 원칙을 전지하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김정은동지의 업적은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김정일동지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불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승리의 신심에 넘쳐 올해전투목표수행에 더 큰 박차를!

## 어랑천 2호 발전소 준공식 진행

【어랑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어랑천2호발전소가 완공되었다.

어랑천2호발전소는 당의 현명한 평도력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떠선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를 건설하여 이곳에서 나오는 전기로 함경북도의 전력문제를 풀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어비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빛내어나가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였으며 주체99(2010)년 5월 이곳을 또다시 찾으시어 어랑천2호발전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어랑천2호발전소 준공식이 19일 현지에서 있었다.

박봉주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와 관계부관 일군들, 건설자, 어랑천발전소 종업원들, 어랑군의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전승훈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어랑천발전소가 위대한대원수님들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책적인 평도, 당의 손길에 의하여 마련된 전력생산기지이



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세협고 평고면 북방의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어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할수 있도록 절름걸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어랑천2호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청년동맹대원들, 지원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충심으로 받들고 위대한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 청년동맹대원들이 혁명적근신으로 부단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앞선 골전방면과 새 기술혁신들을 받아들여 수천m에 달하는 물길공사물 본래있고 해제했다고 말하였다. 지압의 변동으로 갱이 연속 불량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함없이 새로운 공법들을 도입하고 대형파쇄기의 능력을 높여 물길 굴라피에 필요한 자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전력설계부문의 연구사들과 부형수력발전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많은 토랑과 콩크리트 라이팅을 줄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어 발전기설기조공사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전자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 물과전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인 자동화설비기구를 제작완성

하고 2호발전소의 컴퓨터화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였다고 말하였다.

대안중기계획합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라남련합기업소, 라남련합기업소 비롯한 련관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 발전설비조립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평도따라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어랑천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발전소의 종업원들은 발전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건설자들은 김정일대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5호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며 편이 3호, 4호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나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해고되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는 한편 건설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성을 불러일으켜 어랑천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과 자재 등을 제때에 보장하고 발전소건설일정을 앞당기도록 할것을 지시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대천이 어랑천발전소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어랑천2호발전소를 돌아보았다.

## 강원도의 경공업공장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강원도의 경공업공장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질 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함은 이 부문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게 하는것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공업공장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인민들의 수요와 높은 경공업제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리용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이는 한편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로동자들과 인민들의 수요와 높은 유리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열의를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리하여 갖가지 유리그릇과 유리병생산을 비롯한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원산영에군인수지이용공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직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공장앞에 막대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끝냈다.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인민생활향상을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지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루는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제품을 새롭게 개조하여 제품의 생산성을 물론 그 질을 한계단 높일수 있게 하였다.

원산영에군인수지이용공공장에서도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설비들을 새롭게 개조하여 제품의 생산성을 물론 그 질을 한계단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문천식료공장과 원산맥주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다른 경공업공장들에서 막대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특약기자 신 천 일

# 3일동안에 근 1만t의 석탄을 더 생산

## 서부지구의 화력탄보장탄광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주동해나야 합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즈음 서부지구 화력탄보장탄광들에서 놀라운 생산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부지구 화력탄보장탄광들에서는 15일부터 17일사이에서 그간의 하루평균생산에 비해 매일 평균 3 000여의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주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것은 3일 동안에 화차수로는 배수십량, 현물량으로는 근 1만t의 석탄을 더 보내준것으로 된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우리 탄부들의 헌신은 그리움의 총폭발로 이룩된 석탄증산성과로 하여 각지의 화력발전소들로는 석탄을 가득 실은 화차들이 전

용선기간을 메우며 들어서고 발전기마다에서는 만가동, 만부리의 거대한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서부지구의 지하마장들이 증산의 열풍으로 세차게 불고있다. 유양처럼 세차게 불어번지는 주요탄전들의 전투지휘소마다에는 그리움의 대하를 이루고 있는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 공장, 기업소들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줄 한마음을 안고 화석의 기관차마다 석탄증산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는 석탄공업성과 서부지구 각 탄광련합기업소 그리고 탄광일군들이 서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과 맹세로써가 아니라 증산실적으로 보여주자! 이런 신념의 맹세를 안고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탄부들과 한영이리되어 수천척지하마장들에서 당쟁객질사관철전을 책임적으로 지휘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의 정신력발동사업도 더 오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일군들의 이런 결사의 각오

속에 강도높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북방화력발전련합기업소 석탄보장장을 맡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산악같이 펼쳐져있는 증산의 자랑찬 포성을 높이 울리고있다. 17일 하루동안에만도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높이 내세운 석탄생산계획보다 훨씬많은 석탄을, 북방철도련합기업소에서는 계획보다 10여량 더 많은 석탄 화물을 발전소에 보내주었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는 17일 하루동안에 계획보다 2 배에 달하는 많은 량의 석탄이 들어서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같은 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로는 계획보다 1 000여, 동평양화력발전소로는 수백t 더 많은 석탄이 들어섰다. 이것은 나라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이 당중앙을 우리들며 울리는 자랑찬 증산실적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라탄전을 찾으시어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신 아버지 장군님의 자애로운 시선을 그려보다 2, 8직동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생산물결전의 맨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증산의 포성을 높이 울리고있다.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수천의 철광석이 더 생산되어 4.4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미, 기적창조의 근본원리는 천만군민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지금으로부터 40년전, 70일전부터 시작된 나라애를 몸소 이 못 참성을 찾아주시어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지펴주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에 불러일으키시던 날에도 두차례나 제령명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철광석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재평광산에서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10월과 11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곳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에 필요한 철광석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있다.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수천의 철광석이 더 생산되어 4.4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미, 기적창조의 근본원리는 천만군민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지금으로부터 40년전, 70일전부터 시작된 나라애를 몸소 이 못 참성을 찾아주시어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지펴주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에 불러일으키시던 날에도 두차례나 제령명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철광석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재 평 광 산 에 서

방도를 활히 밝혀주시었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철광석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여러가지 직관선전과 방송선전, 혁신자축하모임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일터마다에서 드세한 공격적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도록 하였다.

특히 당, 행정일 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은 철광석생산성과로 만들어가기 위한 오늘의 벽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최선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생산적양양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참모부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기 위해 단위시간당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교차생산조직과 내부예비탐구동원사업을 실정에 맞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앞서서나누셔서나 한 직장과

은 량의 박도와 철광석을 실어다 갔으며 금산광구에서는 현실조건에 맞게 상부수준에서의 여러가지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기계화직장과 운수직장의 운전사들은 겨울철투쟁에 맞게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단위시간당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공무부문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는 만가동의 동음을 계속 울리는데 필요한 부족물자공급을 앞세우면서 철광석생산을 노력적으로 지원하여 평년생산실적을 울리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이 과정에 10월과 11월 철광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데 이어 12월에 들어와 혁신적성과가 편이 이룩되어 4.4분기계획수행의 날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어렵고 불리한 생산조건을 맞아들이고나가며 창조와 혁신의 날과 날을 이어가는 재평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데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갈 총성의 한마음이다. 본사기자 전 선 삼

은 량의 박도와 철광석을 실어다 갔으며 금산광구에서는 현실조건에 맞게 상부수준에서의 여러가지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기계화직장과 운수직장의 운전사들은 겨울철투쟁에 맞게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단위시간당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공무부문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는 만가동의 동음을 계속 울리는데 필요한 부족물자공급을 앞세우면서 철광석생산을 노력적으로 지원하여 평년생산실적을 울리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이 과정에 10월과 11월 철광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데 이어 12월에 들어와 혁신적성과가 편이 이룩되어 4.4분기계획수행의 날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어렵고 불리한 생산조건을 맞아들이고나가며 창조와 혁신의 날과 날을 이어가는 재평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데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갈 총성의 한마음이다. 본사기자 전 선 삼

#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짜고들자

## 산림자원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일군들과 나누는 이야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나무육종과 산림조성 및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 때의 뜻은 높이 받들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가꾸기 위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자원을 늘여 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성으로 간주하고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는데서 산림과학원의 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원장 장영철: 산림을 잘 조성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조국강토를 보호하고 풍치를 아름답게 할뿐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자부심을 가지게

여력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다. 수종이 좋은 나무로서는 빨리 자라는 나무를 먼저 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말한다.

우리 과학자들은 지난 기간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의 새 품종육종을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종자수확성이 1.5배 이상인 우량형성나무의 품종들, 산지조건에서 빨리 자라며 저항성이 센 뽕나무나무종종들을 육종하였으며 도입입양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창성이칼나무, 잣나무, 아카시나무의 재주지역들을 확정함으로써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 품종의 오동나무와 속성뽕나무나무의 생체특성을 해명하여 기초하여 번식방법과 조성방법을 해결하여

우리의 산림조성사업에서 제일 난문제라고 제기되었는 나무의 사물물문제, 성장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 나라 자연지리적조건으로 4~6월사이에 비가 적게 내리고 증발량이 많아 토양습도가 매우 낮기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사물물이 높지 못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자들은 메마른 조림대상지에 나무를 심을 때 사물물을 높이기 위하여 물보존제를 적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자: 산림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산림과학원 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원장 장영철: 산림을 잘 조성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조국강토를 보호하고 풍치를 아름답게 할뿐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자부심을 가지게

파를 거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중앙요양장은 나무모생선의 믿음직한 원종장이며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실현에 적극이바치고있는 본보기단위이다.

중합조종실, 부직포, 해가림발생산기 등 보는것마다 최한하지만 나무모배장들도 찾는 사람마다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생산하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온실에서 나무모를 자라게 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우선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나무모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나무모생산장기를 앞당기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다. 다음으로 병해충피해를 막고 나무모생산을 과학화할 수 있다.

실리있는 원형삼목장

모든 한해에 보통 김을 10회 이상 맴돌아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가림을 해주어야 하는 등 다른 나무모들과 달리 키우는데 많은 점이 든다. 그러나 이 원형삼목장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없애고 나무모의 뿌리내리기를 앞당기고 있다. 원형삼목장에서는 한해에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있다.

여기서는 한해에 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다. 야외재배장의 우월성은 우선 단위면적당 나무모생산을 10배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종자과중량을 70% 절약하고 나무모생산장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활연 옥

의 증식과 적응방법을 해결하였으며 여러가지 산림병해충에 대한 구제방법도 완성하여 실천에 도입하고있다.

새로운 생물농약을 개발하여 벌레를 비롯한 주요산림병해충을 생물학적으로 구제하는 연구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산림보호를 잘하려면 벌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빨리 자리면서 불타이 새 나무들로 뽕나무를 조여 식량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고 한다.

장영철: 우리는 이밖에도 위대한 내린수님들의 유산을 관철하기 위하여 산에서 밤을 비롯한 식용열매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방법과 단나무재배면적을 넓혀서 단나무열매생산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기자: 과학기술로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는 산림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사업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기 바랍니다.

본사기자 김경 철

과 함께 확정된 림농복합경영 대상지들의 면적, 해발고, 경사도, 기후조건, 토양조건을 비롯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참으로 방대하고도 어려운 사업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림농복합경영방법에 의한 산림조성사업이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빠른 기간에 대대적으로 벌려나갈 수 있다.

산림경영학연구소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에 이 과업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연구소일군들은 지리정보계기술을 리용하여 위성화상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연구소일군들은 지리정보계기술을 리용하여 위성화상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과학원당조직에서는 주야전투를 벌리는 연구소일군들과 연구사들에 대한 후방사

위성과 위성화상자료 지리정보계기술에 의한 림농복합경영대상지 선정방법이 새롭게 명명되고 그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림농복합경영대상지분포도가 작성되었으며 대상지들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자료기화되어서, 개별로 합리적인 림농복합경영형식과 관리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림농복합경영전자지도가 개발되었다.

결과 우리 나라에서 림농복합경영을 대대적으로 조직 전개해나갈 수 있는 과학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들의 원림화, 과수원화를 적극 다그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게 될 것이다.

강 철 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방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요양장을 찾아 주시어 국토환경보호성과 요양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아글라글 노력함으로써 많은 성

은을 내는 나무모온실

이 요양장에는 나무모생선의 공업화가 실현된 강질유리온실을 비롯하여 6개 종류의 현대적인 온실이 있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된 강질유리온실에서는 나무모들을 종합조종실의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 빛세기 등을 조종하면서 키우고 있다.

최전선부장치가 설치된 0.5정보의 원형삼목장이 매우 실리적이다.

원형삼목장에서의 나무모생산방법은 야외에서 영양단지 또는 삼목방에서 생산하는 나무모들에 온도와 빛, 수분 등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 적은 면적에서 질 좋은 나무모를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나무모는 수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년이상 키워야

생산성이 높은 야외재배장

중앙요양장에는 야외재배장도 있다.

4정보의 야외재배장에서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지난 기간 40여정보에서 생산하던 양과 맞먹는 나무모를 생산하고있다.

이것은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 실정에서 대단한 혁신이며 널리 일반화해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토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산림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밑천인 동시에 재부이다. 산림의 덕을 보지 않는 부분이나 분야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농업은 산림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지원을 받고있다고 한다. 그것은 농작물의 안전하고도 높은 수확을 보장하며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산림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산림이 어떻게 농업의 강력한 《지원자》로 되는가. 산림은 무엇보다도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정성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토지인 것이다.

나무모생산을 잘 하자면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는 것은 산림을 전방성있게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면 나무모생산을 계산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나무모밭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나무모밭은 매혹 또는 모래에 흠뻑으로써 물대기에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튼튼한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일정한 비옥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무모밭은 산기슭 또는 강하천 주변 비경지를 비롯하여 나무를 심을 대상지까지에 정하는 것이 좋다.

나무모생산은 해당 지역의 기후후후도와 용제법, 경제법, 보호법, 풍지법 등 산림조성계획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본사기자

산림은 농업의 강력한 《지원자》

수지의 역할을 한다.

자라에 의하면 산림이 무성한 곳에서는 땅에서 내린 강수량의 50~80%가 땅속에 저장되고 토양결면으로 흘러내리는 양은 불과 5~10%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저축된 물은 가뭄철에도 계속 농작물에 공급되며 산림이 무성한 지대에서는 농작물이 가뭄을 타지 않고 잘 자란다.

다음으로 산림이 무성한 곳에서는 나무잎을 통하여 날아오른 수분과 머무는 비물, 이슬과 서리, 안개 등으로 끊임없이 대기의 습도를 높여줌으로써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준다.

산림지대에서는 산림이 없는 지대에서보다 대기습도가 15~19% 높다. 뿐만 아니라 산림이 무성한 땅에서는 물기증발을 막기때문에 산림이 없는 들밭에 비하여 습기증발률이 40~50%나 더 낮다. 때문에 울창한 산림에서는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산림이 없는 지대에서는 내리는 비량의 20~30%가 땅결면에서 증발되며 5~7%가 땅결면으로 흘러내린다. 이로 하여 땅속에 저장되는 물의 양은 겨우 5~15%정도이다. 그러므로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불어나고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산림은 농작물생장에 필요한 수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나무모를 잘 키우려면 종자확보사업을 잘해야 한다.

종자는 해당 지역의 기후후후도에 적응된 우량한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이 좋다.

종자가 건강할 때에는 수중에 따라 뿌리 또는 가지를 잘라심는 방법으로 나무모를 키울 수 있다.

앞선 나무모기르기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비밀결재방법, 비밀박막은 실제재배방법과 같은 속성나무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나무모를 나무심을 대상지까지에서 키우 산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숲이나 나무모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나무모도 적극 리용할 수 있다.

본사기자

곡식이 잘 여물게 해주므로 알곡수출이 높아진다.

산림은 다음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침식도 막는다.

산림속에서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과 자연적으로 생긴 비료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으로 운반되어간다. 무성한 1정보의 산림에서 1년에 비물에 씻겨서 농경지에 들어가는 비옥한 토양의 양은 수백톤이 나 된다.

바로 이렇게 때문에 산림이 울창한 곳에서는 농업생산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아무런 번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어도 농업생산은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산림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나무재료를 연료로 준다.

또한 집짐승에게 필요한 영양가 높은 먹이식물을 주기때문에 축산업에도 지원을 준다.

교수 박사 엄영 일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돌경축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 전시회 개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7돌경축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전시회가 19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다.

만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과 수형질사용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모셔져있다.

도창조의 새 풍경, 《연호호의 새 모습》, 《수미리락부의 봄》, 유화 《황금의 아침》, 조선비단화 《마시령의 겨울》, 아르필화 《월령이래 사파리바다》 등도 전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적을 빛내고요 유순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우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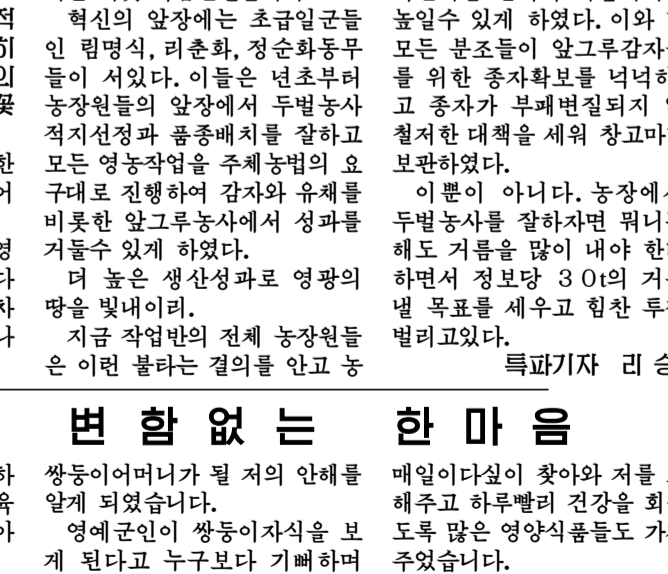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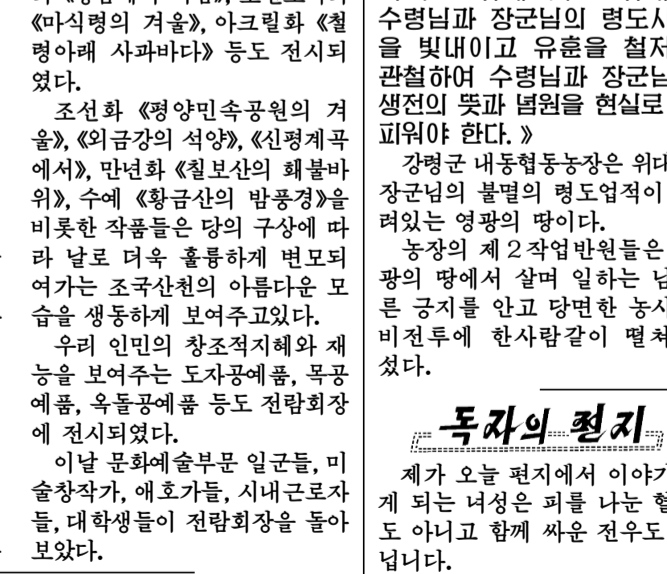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적을 빛내고요 유순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우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적을 빛내고요 유순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우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모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적을 빛내고요 유순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헌신로 꽃피우라 한다.》



다음 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1일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헬날남대절에 즈음하여 연회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독자의 편지

제가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녀성은 피를 나눈 혈육도 아니고 함께 싸운 전우도 아닙니다.

변함 없는 한 마음

쌍둥이여머니가 될 저의 안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1일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헬날남대절에 즈음하여 연회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독자의 편지

제가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녀성은 피를 나눈 혈육도 아니고 함께 싸운 전우도 아닙니다.

변함 없는 한 마음

쌍둥이여머니가 될 저의 안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1일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헬날남대절에 즈음하여 연회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독자의 편지

제가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녀성은 피를 나눈 혈육도 아니고 함께 싸운 전우도 아닙니다.

변함 없는 한 마음

쌍둥이여머니가 될 저의 안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추모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추모행사가 16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총련합회회의실에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상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땡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자들이 쓰여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추모회가 진행되었다.

추모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상상이 모셔져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대표들, 심양에서 사는 조선공민들, 지원군로전사 강연단, 심양시조선족로인협회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 성원들, 신앙주체 우리 나라 총평사가 추모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추모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지난 3년간은 우리 인민과 전체 해외동포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결한 충정으로 심장을 뚫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성스러운 날이었다고 말했다.

해외 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모심으로 영생하시며 온 세계를 환히 밝혀주셨다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양궁전을 우러르며 대원수님들을 무궁원 영향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길이 모실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서거 3돐에 맞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대강행군길을 이어가시자 인민행렬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을 못 건디게 그리

며 천만국민이 목에여 부르는 다함없는 경모의 노래, 그리움의 송가가 하늘을 뜨겁게 울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먼곳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다정한 심정으로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주시었으며 해외동포들의 마음의 기둥이 되시어 조선사람의 넋을 지켜 변함없는 애국의 한길로 꽃잎이 걸어나가도록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또 한편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더없는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거머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애국사업에 적극 기여하는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기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무궁토록 길이 빛날것이며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태양의 모습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추모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추모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추모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생애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날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으로 돌아보며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였다.

추모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생애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날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으로 돌아보며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였다.

추모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생애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날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으로 돌아보며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였다.

추모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생애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날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으로 돌아보며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였다.

추모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생애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날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으로 돌아보며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였다.

추모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생애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업적 영원하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총련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를 되새길수록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이의 한평생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체현해볼수 못한 가장 존엄한 시대의 폭풍우속에서 보낸 한평생이었다.

그의 선군혁명령도는 인류 정치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고통을 이겨내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생각하면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할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정치가이시고 강철의 인간이다.

혁명도 총련일군대표단 단장은 태양민족의 궁지와 영예같은 선군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평순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그이의 선군혁명령도는 인류 정치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애국, 애족, 애민

의 불멸의 장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남달랐던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난관앞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은 후호의 흔들림도 없이 천백배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영예로운 승리로

될수 있었다.

인류력사는 우리 장군님과 같은 불세출의 선군령장, 회세의 정치원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조국과 인류앞에 쌓으신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오상철 총련 지방본부 교문을 이렇게 강조하였다.

재일조선인운동맹단의 매시 매 단계마다 천재적인 예지로 총련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분이 우리 장군님

이다.

그이께서는 총련이 승리와 영광의 지평스러운 년풍을 아로 새길수 있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그이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가 있어 우리 재일동포들은 이역에서도 해외조선공민으로 가슴펴고 멋뻐이 살아올수 있었다.

자애로운 태양의 그 영상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을 강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기로 하였다.

# 위인 중의 위인

위인 중의 위인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추모행사가 11일 모세야 하바루스크변강에서 진행되었다.

원동 및 세비리코리엔연합회와 하바루스크변강고려인동일연합회 일군들, 동포들 그리고 러시아 하바루스크변강로조선선협회와 하바루스크변강대의 친선협회원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하바루스크주제 우리 나라 부

총평사와 평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신다》라는 주체의 사진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으로 돌아보았다.

이어서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배구선 원동 및 세비리코리엔 연합회 회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해외에 사는 조선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락판을 안겨주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위인들의 위인이

시라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두 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

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남조선당국은 백해무익한 동족대결책동을 버리고 북남관계를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발표

지나온 2014년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기려는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그에 역행하는 반동일제력의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하게 벌어진 복잡다단한 해였다.

올해에 펼쳐진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성의를 다한것이 누구이며 대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며 북남관계를 파고들어 폭악한 장면이 누구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그 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올해 북남관계의 교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 1.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는 올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여 정조하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정조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북남당국자 관계개선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과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이 땅에 초태할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소 취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하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1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적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2월 초에는 정세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운 속에서서도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직접자실무접촉을 주동적으로 개최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명에 따라 북과 남의 책임이 전한있는 고위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현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고위급 접촉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정와대사와의 고위급접촉이 열렸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결의 악순환에서 일몰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를 남측에 전하였으시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처럼 자기 주장만을 절대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똑 러놓고 대담하게 모든 것을 세롭고 참신하게 풀어나감으로 관계개선의 첫출발을 잘 때리고 하였다.

우리의 주동성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2월 14일 북남고위급접촉에서는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예 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려놓은 광란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고위급접촉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정세가 극히 악화된 속에서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예제대로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인내있게 노력하였다.

어버이사형님께서는 조국통일과 판을 바로하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1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적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2월 초에는 정세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운 속에서서도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직접자실무접촉을 주동적으로 개최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명에 따라 북과 남의 책임이 전한있는 고위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현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고위급 접촉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정와대사와의 고위급접촉이 열렸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결의 악순환에서 일몰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를 남측에 전하였으시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처럼 자기 주장만을 절대하지 말고 서로의

성의를 다한것이 누구이며 대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며 북남관계를 파고들어 폭악한 장면이 누구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그 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올해 북남관계의 교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 2.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파탄행위

우리는 올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여 정조하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정조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북남당국자 관계개선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과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이 땅에 초태할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소 취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하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1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적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2월 초에는 정세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운 속에서서도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직접자실무접촉을 주동적으로 개최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명에 따라 북과 남의 책임이 전한있는 고위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현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고위급 접촉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정와대사와의 고위급접촉이 열렸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결의 악순환에서 일몰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를 남측에 전하였으시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처럼 자기 주장만을 절대하지 말고 서로의

성의를 다한것이 누구이며 대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며 북남관계를 파고들어 폭악한 장면이 누구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그 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올해 북남관계의 교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 2.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파탄행위

우리는 올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여 정조하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정조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북남당국자 관계개선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과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이 땅에 초태할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소 취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하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1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적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2월 초에는 정세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운 속에서서도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직접자실무접촉을 주동적으로 개최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명에 따라 북과 남의 책임이 전한있는 고위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현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고위급 접촉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정와대사와의 고위급접촉이 열렸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결의 악순환에서 일몰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를 남측에 전하였으시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처럼 자기 주장만을 절대하지 말고 서로의

성의를 다한것이 누구이며 대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며 북남관계를 파고들어 폭악한 장면이 누구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그 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올해 북남관계의 교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 2.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파탄행위

우리는 올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여 정조하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정조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북남당국자 관계개선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과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이 땅에 초태할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소 취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하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1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적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2월 초에는 정세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운 속에서서도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직접자실무접촉을 주동적으로 개최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명에 따라 북과 남의 책임이 전한있는 고위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현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고위급 접촉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정와대사와의 고위급접촉이 열렸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결의 악순환에서 일몰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를 남측에 전하였으시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처럼 자기 주장만을 절대하지 말고 서로의

성의를 다한것이 누구이며 대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며 북남관계를 파고들어 폭악한 장면이 누구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그 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올해 북남관계의 교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 2.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파탄행위

우리는 올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여 정조하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정조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북남당국자 관계개선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과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이 땅에 초태할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소 취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월 23일에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하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산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1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적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2월 초에는 정세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운 속에서서도 홀이든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직접자실무접촉을 주동적으로 개최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명에 따라 북과 남의 책임이 전한있는 고위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현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고위급 접촉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정와대사와의 고위급접촉이 열렸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결의 악순환에서 일몰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를 남측에 전하였으시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처럼 자기 주장만을 절대하지 말고 서로의

성의를 다한것이 누구이며 대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며 북남관계를 파고들어 폭악한 장면이 누구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그 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올해 북남관계의 교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 2.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파

# 범죄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는 파란을 면할수 없다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인권유린국>으로 매도한 미국의 강도적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하늘에 닿게 하고있으며 천만민을 미중유의 반미성정으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국과 그 주주들은 지금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악의에 찬 나팔을 불어내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권대중을 위한 우리의 인권보장제도가 제일이며 우리 사회주의민주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에 이상 없다고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인권>기준이란 인민대중의 생명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반역사적이고 반인민적인것으로서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연연도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권대중을 위한 우리의 인권보장제도가 제일이며 우리 사회주의민주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에 이상 없다고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으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도 이루지 못한 침략 야망, 주권전복기도를 <인권문제>를 통해 끝끝내 실현해보려는 범죄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인권의 본질은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인간에의 자주적권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행사에 의해 보장되고 담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이냐 국민이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개도 못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수십년간의 식민지노예살이를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인민이다.

자주권을 빼앗긴 나라들을 보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있는가. 나라가 망한뒤에 인민들은 도란에 빠지고 어느 하루도 그칠줄 모르는 종족간, 교파간 싸움으로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빠져있다. 이런 나라들에 어떻게 진정한 인권이 있을수 있으며 그속에서 어떻게 참다운 인권을 향유할수 있겠는가.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과연 국권을 팔아 개인의 인권을 살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용감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그따위 나쁜 인생관에 저주를 보냈지 오래다.

자주권수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정신과 혁명적신념은 적대세력들에게 철폐되고 퇴색이 되고있다. 그에 걸맞은 미제와 그 주주들은 여러차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강한 정신을 꺾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 저 하나의 리의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자들을 리용하여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정부와 인민들사이에 리간을 조성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데서 제비를 본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도 그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날뛰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다. 국권을 잃고 노예살이를 하던 지옥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끝까지 무지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의 영성을 깎아내리고 온 세기를 저들의 인권유린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것이 미국이 <인권>소동을 통해 노리는 목적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권리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제도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사회성원들의 요구를 다같이 실현할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고 법적으로 담

보해주는 제도가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로씨야의 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2012년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정이 채택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것이 무료라는것이다.

조선에는 실업자가 없다. 국가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조건을 보장하고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활동이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되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생각하는것이 바로 조선인민의 정신적특질이다.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

우리 나라에 체류한적이 있는 한 미국인은 하와이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북조선은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중에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해준다. 우리가 서방으로부터 들은 모든것, 우리의 상급들이 우리에게 할 모든 말이 완전히 그라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에 체류한 광고의교관들은 조선에 대하여 이전에 들은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사기했다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처럼 사는것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있는 꿈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미국은 어떠한가.

돈있는자들의 인권을 부르짖는 미국이야말로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이며 인권의 악랄한 파괴국가이다.

백인경찰이 흑인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목졸러 죽이고서도 무죄로 인정되고 당

국의 반인종주의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총알에 놀리우고 쇠교랑을 차는것이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시기 다른 나라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감행한 미국의 야수적만행은 온 세계를 분노로 끓여버리게 하고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월남, 캄보쟈, 라오스, 칠레, 파나마, 그네네더,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국의 행위에 전인류가 치를 떨고있다.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일으키는 미국의 중심은 사회주의조선으로 쏠리는 세계민심의 흐름을 차단하고 모든 나라들의 국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것이다. 미국이 앞잡이들을 내세워 세계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려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처럼 만들자는데 있다.

저들의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는 덮어두고 존엄성은 우리 공화국에 <인권유린>의 감투를 뒤집어쳐 세계를 인권유린의 판무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경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진보적인인류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그저 그 범죄성과 반동성으로 하여 파란을 면치 못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미국의 <인권>공세를 풍지박산낼것이다.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명백한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의기지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기적처럼충동하며 갖은 수법과 모략으로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위대한 지랄발광하고있다. 인간쓰레기들을 <인권>대내우고 추종세력들을 내몰아 강압통과시킨 대조선(인민)은 바로 강위력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는데 목적이

였다.

미국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그런 나쁜 방법으로 허물어버릴수 있다고 보는것이야말로 유지하기 그지없다.

순결한 마음으로 합쳐진 사람들은 승리를 앞둔들이 모인 세력은 반드시 패한다 는 말이 있다.

천만심장이 하나로 합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 없는 가장 위력한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려 일심단결을 파괴해보려는 미국불량배들의 망상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워보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마지막발악에 불과하다.

광범한 천만인민대중의 마음이 위대한 당의 투리에 하나로 합쳐져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바야흐로 승리의 무대가 펼쳐질것이다.

반공화국<인권>공세로 소중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의 기도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선 그 들고 이끌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며 최후까지 생활하는 소중한 삶의 요람을 미국이 보란듯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위창하게 꾸려나가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자리잡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깊이 뿌리내린 이 생활전열을 세손으로 파괴하고 세상에 제 일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제발로 차단하려는 식의 미국의 <인권>소동은 우리에 대한 무지와 체질적부강으로부터 출발한 승양이적본능을 근원을 두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우리 제도,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의 이 제도를 자본주의와는 대별할수 없는 하늘과 땅차이로 만들려는 천만근민의 진군을 비현한 모략과 음모로 막아보려는 미국이 가소용이 그

지였다.

우리는 미제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강위력한 전쟁역력으로 짓궂게버릴것이다.

군사적협이 약하면 아무리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여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되고만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도처에서 모략과 날조를 꾸미며 감행되는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을 짓부셔지 못한것은 그것을 파탄시킬수 있는 군사적협이 약했기 때문이다.

군력이 약하면 국권을 수호할수 없고 진정한 인권도 보장해줄수 없다. 침략자들에게 자기 인민을 통째로 칼도마루에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로부터 자위적군사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며 전 주목이다.

미국에 의해 강압채택된 <인권결의>는 저들의 새 조선전쟁도발책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것으로서 1950년 6월 25일에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공화국이 <남침>하였다고 하면서 조작해낸 <유엔결의>와 1999년의 유고슬라비아 전쟁, 2003년의 이라크전쟁전야에 강행된 <유엔결의>들을 반복해 하고있다.

우리는 <인권>공세를 가하다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의 <인권>공세를 제발로 차단하려는 식의 미국의 <인권>소동은 우리에 대한 무지와 체질적부강으로부터 출발한 승양이적본능을 근원을 두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우리 제도,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의 이 제도를 자본주의와는 대별할수 없는 하늘과 땅차이로 만들려는 천만근민의 진군을 비현한 모략과 음모로 막아보려는 미국이 가소용이 그

제 일 출

## 조선을 반대하는 <인권>소동은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조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오스트리아 조의 평화채팅을 위한 로조연들의 반대위원회가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을 반대하는 <인권>소동은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지한 평화협상에 응하지 않고있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조작되었다.

미국은 판나나와 유럽나라들에서 비밀감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고문하는 나라이며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쿠바 등 세계 많은 진보적나라들을 질식시키

기 위한 비법적인 제재가 실시되고있다.

EU의 일부 성원국들은 미제의 나쁜행위 <인권>소동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있다.

유감스럽게도 유엔도 성원국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유엔헌장을 위반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소동을 규탄하면서 조선을 지지하는 반대하는 <결의>채택을 위한 미 국 등 서방의 정치리용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영웅적조선인민이 자기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결

의를 강압통과시키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감행한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성 대변인성명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알제리의 인터넷신문 <알샤이크 알 아라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건본문을 모시고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성명 전문을 게재하였다.

조선공산당소속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인터넷홈페이지는 우리 나라 기발한것, 우루파이신문 <라 후벤 두드>는 김일성평화상을 진행한 열병식사건에 외무성 대변인성명과 함께 편집하였다.

베트남조선친화협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소개 글을 달고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올렸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총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리는 일련의 날조된 <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킴과 관련하여 공화국은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를 전면반격하며 현수준의 도발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할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지지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반공화국책동을 다스린 단호히 규탄한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과 리비아통신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전문 모으기로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노력

로씨야에서 최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10일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장 알렉세이 게라시모프는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4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50여대의 항공기, 280여대의 장갑기체들이 군대에 납입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해 약 100대의 비행기와 120여대의 직승기, 약 600대의 장갑기체가 연방무력에 배속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또한 로씨야가 15일 운반로켓 <브로노우-M>을 발사했다.

바이코즈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운반로켓에는 통신위성 <아말-401>이 탑재되어있었다 한다.

7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아리아네-5>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무게가 3t 181kg인 이 위성은 나라의 통신기반설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국내총생산이 5.2-5.3% 늘어났다고 예견되고있다.

나라에서는 앞으로 3년동안에 그 성장률을 7%이상 끌어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9일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벨라루스에서 마약반대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6일 이 나라 법무기관 성원들은 모길레프주에서 마약소량 작전을 벌여 7kg의 헤로인을 압수하고 2명의 마약판매범피자를 체포하였다.

알려진것처럼 국제 축구 연맹은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가 로씨야에서 진행되게 된다.

로씨야 정부는 월드컵경기대회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다.

로씨야의 부연 대통령과 메드베브수상이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모스크바,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소치, 카잔, 짜마라, 칼리닌 그라드, 블고그라드 등 여러 도시들을 경기장소들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1개 도시의 12개 경기장들이 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로씨야에서는 경기대회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에 전면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부에서는 대규모경기장건설과 시설물건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5개 경기장이 이미 마련되어있는 조건에서 7개의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현대적으로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지금 모스크바의 한 경기장에 대한 보수공사는 마지막단계에 이르렀으며 상크트-페테르부르크의 경기장건설도 마감단계에서 다고쳐지고있다.

새로 건설되는 경기장들을 특색있게 설계하고 그 시공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있다.

이날 나고이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가 진행되었다.

로씨야의 이러한 준비사업은 국제축구연맹의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 10일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로씨야의 까잔과 소치, 모스크바 등을 방문하여 경기장건설현황을 현지에서 직접 료해하고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국제축구연맹 위원장은 로씨야가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경기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15일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시에서 인간사슬을 형성한 각계층 군중이 경찰서로 통하는 도로들을 가로막고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경찰서앞에서 미국이 해외비밀감옥들에서 감행한 고문행위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리로 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잔혹한 고문행위의 부당성과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들까지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로씨야, 이란을 비롯한 나라들은 미국이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은 완전히 위선이며 그들이 체계적으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하면서 책임있는자들을 엄하게 처벌할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도이칠란드와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서도 미국의 고문행위는 국제법위반이며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세계가 미국의 고문행위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에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북로티와 같이 미국은 해외에 숨겨진 비밀감옥들을 만들어놓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야수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 수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고조

<흑인들과의 <전쟁>을 끝장내라> 등의 글이 쓰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살인행위를 비호하든 해나선 사회당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버클리에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가 진행되었다.

오클랜드시경찰당국이 시위현장에 경찰들을 내몰아 20여명의 시위자들을 검거투옥하는 폭행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13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많은 군중이 시내광장을 모여 최후의 흑인들을 살해한 백인경찰들을 처벌하지 않은 사법당

국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이어 그들은 거리를 따라 시위행진을 벌이면서 <흑인사냥을 중지하라!>, <경찰폭력을 근절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한편 이날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체스코 등 대도시들에서도 항의시위들이 벌어졌다.

전국적범위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큰 규모의 시위들이 연일 벌어지고있는 속에 미국회보 <인디애나>에 실려

프랜체스코 등 대도시들에서도 항의시위들이 벌어졌다.

전국적범위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큰 규모의 시위들이 연일 벌어지고있는 속에 미국회보 <인디애나>에 실려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고조

<흑인들과의 <전쟁>을 끝장내라> 등의 글이 쓰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살인행위를 비호하든 해나선 사회당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버클리에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가 진행되었다.

오클랜드시경찰당국이 시위현장에 경찰들을 내몰아 20여명의 시위자들을 검거투옥하는 폭행을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13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많은 군중이 시내광장을 모여 최후의 흑인들을 살해한 백인경찰들을 처벌하지 않은 사법당

## 여러 나라에서 집회와 파업

일본 도쿄에서 6일 특정비밀보호법을 채택한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당국이 지난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채택을 강행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집회에는 약 16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특정비밀보호법이 판리들의 비행을 덮어버리고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법철폐를 요구하여 투쟁해나가는 리임을 밝혔다.

이날 나고이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벨지오의 브루셀에서 8일 당국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운수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참가자들은 나라의 경제행편이 날로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파업으로 비행기와 열차, 버스운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한편 이탈리아의 50여개 도시에서 12일 당국의 부당하고 동맹법채택시도를 반대하는 파업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여기에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집회들을 열고 당국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심히 침해하게 될 동맹법을 채택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파업으로 하여 련계운수부문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학교, 봉사시설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해외비밀감옥들에서 감행한 고문행위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리로 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잔혹한 고문행위의 부당성과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들까지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로씨야, 이란을 비롯한 나라들은 미국이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은 완전히 위선이며 그들이 체계적으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하면서 책임있는자들을 엄하게 처벌할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도이칠란드와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서도 미국의 고문행위는 국제법위반이며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세계가 미국의 고문행위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에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북로티와 같이 미국은 해외에 숨겨진 비밀감옥들을 만들어놓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야수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 수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 <고문선진국>으로 악명을 떨치는 악의 제국

판치령 생긴 장악안에 넣고 시키는 상재에서 잠을 채우지 않거나 동공문을 하였는가 하면 고문에서 드림을 사용하고 잔인한 성고문까지 들었다. 수감자를 벽에 가한 방안에 가두고 섹을 쏘이면서 요란한 음악을 켜놓아 실신시키거나 반대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차가운 독방에 감금하여 자제온도를 죽게 만들기도 하였다. 지어 굶은 음식물들을 훈공으로 주입하고 고통을 주고 추기기를 머리에 대고 당장 쓰어버릴것처럼 위협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하였다.

이것은 <전시긴급조치>에 관한 제비바침약, <전쟁로동대우>에 관한 제비바침약 등 여러 국제법들에 대한 탄복한 위반이며 인간의 권리와 인류문화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는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저들이 저지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그것이 마지못해 행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수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미국이 해외비밀감옥들에서 감행한 고문행위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리로 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잔혹한 고문행위의 부당성과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들까지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로씨야, 이란을 비롯한 나라들은 미국이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은 완전히 위선이며 그들이 체계적으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하면서 책임있는자들을 엄하게 처벌할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도이칠란드와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서도 미국의 고문행위는 국제법위반이며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세계가 미국의 고문행위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에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북로티와 같이 미국은 해외에 숨겨진 비밀감옥들을 만들어놓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야수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 수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미국이 해외비밀감옥들에서 감행한 고문행위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리로 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잔혹한 고문행위의 부당성과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들까지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로씨야, 이란을 비롯한 나라들은 미국이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은 완전히 위선이며 그들이 체계적으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하면서 책임있는자들을 엄하게 처벌할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도이칠란드와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서도 미국의 고문행위는 국제법위반이며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세계가 미국의 고문행위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에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북로티와 같이 미국은 해외에 숨겨진 비밀감옥들을 만들어놓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야수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 수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